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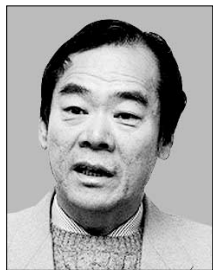
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소래포구를 찾았다. 연휴라서 그런지 정말 사람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 인해였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가족에게 한마디 건넸다. "누가 뒤에서 불이야 라고 한마디만 외치면 바로 이곳이 지옥일거야." 나는 그런 두려움을 실제로 느끼면서 말 했다. 흐름에 밀려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 말에 공감을 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상주의 관중 압사사고를 속보로 전하고 있었다.

경북 상주에서 터진 방송 공연 입장객 11명 참사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했다. 아직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와 부상자 치료, 보상 과정에서 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한번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들은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 다음날도 언론들은 규격화된 보도를 정밀 통찰한 반성도 없이 쏟아 냈다. 그날 소래포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소래 포구에선 그런 일이 그 시각에는 일



불자 세상보기

이근후

열린마당 클리닉 원장

내 눈앞의 '위험' 들

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이 그런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언젠가부터 소 잃고도 절대로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다행히' 만 믿고 자내는 습관이 생긴 것은 아닌지 말이다.

사고가 생기면 급방 세상이 끝장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이 별다 하고 기억에서 사라진다.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습관 때문이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과정

을 양해하던 안전한 생각을 버리고,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우자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나 진행당사자 모두 정해진 기준에 의한 약속도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요식적인 형식일 뿐 실제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습관과 관행이 늘 위험상황을 노출하고

다행과 요행의 줄타기를 하게 된다.

행사의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원칙을 쉽게 어긴다. 무리한 과정의 진행을 너무 쉽게 용납한다. 심지어 무리한 과정을 통해 바라던 결과를 얻게 되면 모두들 유능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개인적 친분이나 정서적 문제를 앞세워 참된 원인을 호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된 원인에 접근을 하자면 참 '나'를 찾는 작업만큼이나 진지하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중대중 그리고 불행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인재를 막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사고가 올바라야 한다. 더러는 기초적인 것을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누구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면서 훌륭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상주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한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 올바른 기초사고의 확립이 없이는 위험은 언제나 폭발하게 마련이다. 합리적인 기초 사고(思考)에 대한 관행적 습관 그리고 책임, 그것이 외양간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빛고을'이라는, 이름도 고운 광주에서 불법의 광명이 솟구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광주 동구불교협회와 현대불교가 공동개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 불자들이 일반시민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어, 1000여명이 모이는 상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1000여명이 무슨 상황이나 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광주에서 불교행사에 1000여명이 모였다는 것은 여타 불교세가 성한 곳에서 몇 천 명이 모인 것보다도 의미가 있다.

원래 백제문화의 터전이고, 수많은 명찰이 있고, 또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했던 호남지역에 불교의 교세가 현저하게 약화된 것이 벌써 꽤 오랜 일이 되었다.

이런 곳에서 이만한 성황을 이루었다는 것은 불교가 다시 흥룡할 수 있는 시점인연이 도래했다는 조짐과도 같이 느껴지기에 더더욱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빛고을 밝히는 부처님 제자들

물론 단순히 시점인연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의 심대제자라는 구체적 인물을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는 주제가 참신하였고, 그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내기 위해 애쓴 광주 동구불교협회와 현대불교의 노력에 아낌없는 찬탄을 보내야 옳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호소력 있는 주제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성공적인 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귀한 예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를, 바로 여기의 삶에 적실한 것으로 재해석하여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반론이다.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에 잠시 눈감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교세가 약하고 환경이 어려운 곳은 이러한 당위를 실현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단순히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동안 불교세의 침체로 마음상해 있던 호남 불자들의 가슴이 조금씩 펴졌을 것이다. 그 가슴에 우리 천만불자들의 뜨거운 찬탄과 격려가 전해지고 힘이 보태어져, 이렇게 일어난 소중한 기운이 호남불교의 부흥을 일러는 기지개가 되고, 나아가 한국불교를 이끄는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 성대용(한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부동산 투기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출요경 방일품>

국민들을 시름 짓게 하던 강남의 부동산값 폭등을 잡겠다며 참여정부가 내놓은 8·31대책이 나온 지 한달 보름이 지났다. 떨어질 줄 모르던 부동산의 상승곡선이 꺾이기 시작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양상도 보이고 있다. 미미하지만 부동산투기 세력의 기세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세금 내는 근로소득자는 평생 벌여봐야 집 한 채 구하기 힘든데, 변변하게 세금도 잘 내지 않는 투기꾼들이 수십억 아파트에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모습은 분명 정상적 아니다. 학자들은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이 연봉의 5배 이내가 되어야 정상적인 경제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1/3의 소득을 저축했을 때 15년이 걸려야 1억~1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마련하고, 조금 더 절약하면 10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이번 8·31대책이 지금과 같이 심각한 부동산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31대책으로도 일반 국민과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체,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부동산을 투자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주위에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택을 보유하여 차익을 기대하는 '내 안의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면 부동산 투기를 영원히 막을 수 없다. 당연히 불자라면 삿된 방법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조용수(서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자리' 보다 학교발전이 먼저

중국대 재단의 이사 선임을 놓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이다. 신심 깊은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계 대학인 중국대를 나온 동문으로 착잡한 감정이 앞선다. 이번 이사선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패 나누기로 간단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매년 실시하던 중앙일보의 전국 대학순위평가에서 올해는 아예 4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동문들은 중국대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3류 대학으로 영원히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중국대의 운영은 어느 누가 하든 중국대의 발전과 종립학교의 이념에 훼손되지 않도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이다.

진정 중국대의 발전을 위한다면, 또한 종단화합을 위한다면 불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기를 바란다. 이병민(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앞뒤 바뀐 '교원평가제'

'현대불교' 545호에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불자세상보기를 읽으면서 현직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부끄러우면서도, 전혀 교단의 현실을 모르는 글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적격 교사의 퇴출은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임명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도'가 우리교육의 문제를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장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인사 등이 참가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교장 혼자 매기는 교원평가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킬지 우려해야 한다. 단순히 시정원리라면 강요되는 교원평가제를 아무런 준비 없이 선포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교육의 개선을 위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우수교원 특별법'을 기초로 한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었으며 그러한 장기적 비전에서 우수한 인력을 교사로 유입시키는 정책이 우선이었다. 대뜸 돈 안 드는 평가라는 도구로 이미 어쩔 수 없이 굳어지고 뒤틀린 분들을 다시 벼랑으로 내모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우수교원 특별법' 같은 획기적인 대안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교단으로 유입케 하면서, 점차 나태함에 주저앉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연찬과 평가를 바탕으로 승진체제를 도모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와 교원단체가 한탄의 소리를 토하는 것이지, 시대의 요청과 교육수혜자의 요구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이재곤(광주 영천중 교사)

한심한 문화재청장 발언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최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성보박물관을 '항은 항습도 안 되는 유물전시관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불교계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한다.

유 청장의 발언은 분명 대한민국 문화재 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인물이 할 소리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현등사'라는 명문이 있어 소유가 소유권이 분명한 '사리구'를 사찰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모 정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 청장은 '현등사'라는 명문을 지워버리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취지로 모 제벌의 사설 박물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다.

우리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프랑스가 수탈해간 '직지'나 일본이 훔쳐간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한국의 박물관을 박물관이 아니라 유물전시관 수준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린다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성보박물관과 불교문화재에 대한 유 청장 낮은 인식수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석곤(서울 성북구 정릉2동)

'연대' 민영

심민섭



나는 어제를 보았다 그래서 내일을 안다!

한국의 에드가 케이지 박진여씨의 놀라운 전생 투시 능력 현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그 사람이 전생에서 지은 경험의 결과입니다

동방파동 명상연구소 02)730-6156 / 051)817-6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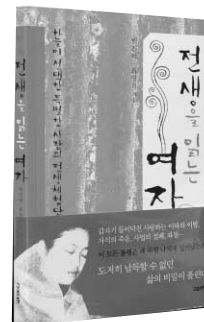
- ◆ 갑자기 들이 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별
- ◆ 평생을 불치병, 난치병, 불구자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
- ◆ 자식의 가출... 자살... 사고사
- ◆ 사업의 실패... 좌절... 절망
- ◆ 원인을 몰라 영적 병에 고통을 받는 사람



왜 이런 불행들이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과 그 해결책을 충격적인 카르마(업)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의 저자 박진여씨가 당신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을 풀어 드립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업)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는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살았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나는 괴로운가? 나와 남들과의 근본적 관계는 무엇인가? 괴로움의 '존재 이유' 그것이 해명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궁극적으로 해명되지 못한다.



■교묘아침 값 8,000원

